

아일랜드의 언어 정책

정영국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교재개발학과 교수

이 글은 아일랜드의 언어 사용과 언어 정책상의 변화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아일랜드는 1922년에 영국의 오랜 지배로부터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으로 독립했고, 1937년에 왕권 정치의 막을 내리고 아일랜드 공화국을 건설했다. 1937년에 제정된 아일랜드 헌법 제8조에서 아일랜드어를 제1 공용어로 하고,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상생활에서 아일랜드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국민은 5% 미만이고 95% 이상이 영어를 사용한다. 2002년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 약 9%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일랜드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아일랜드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약 2.6%인 73,000명만이 일상생활에서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며, 이 중에서 21,000명은 아일랜드어 사용 지역인 갤택트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Eallaith, 2004: 178)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도 함께 사용한다. 그러므로 국민들 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일랜드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어를 제1 공용어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일랜드 국립박물관 안내 표지판

1. 아일랜드의 역사와 언어

초기 아일랜드어로는 서기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부족장 무덤의 위치나 영토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비석과 같은 석조물에 오검(ogham) 문자를 사용하여 새긴 것이 남아 있다. 그 뒤 5세기경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로마자가 도입되었다. 아일랜드는 12세기부터 약 700년 동안 영국의 침공과 지배를 받으면서 언어생활에도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1500년 대 말에 엘리자베스 1세가 아일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9년 전쟁(1594~1603)을 벌였는데, 1600년에 킨제일 전투에서 아일랜드와 스페인 연합군이 영국군에게 대패하면서 아일랜드는 본격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뒤 영국 내란에서 의회군을 이끌어 왕당파를 격퇴한 크롬웰이 왕당파를 후원한 아일랜드에 보복하기 위해 1649년에 아일랜드를 침공해서 대량 학살을 감행했다. 이때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던 많은 토착민들이 토질이 매우 척박한 서부 해안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 이후로 아일랜드어는 주로 서부 해안 지역의 가난한 하층민의 언어로 전락하게 되었다. 영국의 본격적인 지배와 더불어 영어 사용 인구수는 점

차 증가하고, 이에 반비례해서 아일랜드어 사용자 수는 감소했다.

17세기 초기에만 해도 아일랜드어는 더블린과 영어 사용자들의 정착지 몇 군데를 제외한 아일랜드 전역에서 주요한 의사소통 도구였다. 그러나 1922년 아일랜드가 독립할 무렵에는 일부 벽지와 서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Commins, 1988: 11) 아일랜드어 사용자가 급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845년에서 1848년 사이에 일어난 대기근 사건이었다. 이때 약 150만 명이 굶어 죽었으며, 약 100만 정도가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이민을 갔다. 이들 아사자나 이민자 의 대부분은 가난한 서부 지역의 주민들이었으며 아일랜드어 사용자들이었다. 1800년대의 언어 사용에 따른 인구 분포를 보면, 1800년대 초에는 아일랜드어 사용자가 200만, 영어 사용자가 150만, 이중 언어 사용자가 150만으로 아일랜드어 사용자가 영어 사용자보다 많았으나 1800년대 말에는 아일랜드어 사용자가 150만, 영어 사용자가 250만으로 그 양상이 바뀐다.(Kallen, 1988: 127)

2. 아일랜드의 언어 정책

2.1. 아일랜드어 부흥 운동

오부카라(O'Buachalla, 1984)에 따르면 1800년대 말 아일랜드에는 초등학교가 약 8,600개, 중등학교가 490개 정도 있었으며, 이들 학교에 약 8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식민지였던 국가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공교육 체계를 갖춘 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교육이 아일랜드어의 전승이나 부흥에는 별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일랜드어가 1878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되었지만, 주요 과목이 아닌 라틴어나 불어처럼 주변적인 과목의 성격이었다. 아일랜드어는 초등학교 5, 6학년들에게 정규 수업 후에 특별 과목으로 가르쳤다. 중등학교

에서도 그리스어, 라틴어, 불어, 독일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었다. 1800년대 말에 아일랜드어를 가르치던 학교는 전체 학교의 1%를 채 넘지 않았으며, 이 언어를 배우는 학생 수도 80만 명 중에서 2,000명을 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아일랜드어를 부흥하기 위한 운동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1876년 아일랜드어 보존 협회(Societ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Irish Language), 1880년 게일 연합(Gaelic Union), 1893년 게일 연맹(Gaelic League)이 조직되었다. 게일 연맹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영국 식민정은 1904년 초등학교에서 아일랜드어와 영어로 된 이중 언어 교육(bilingual programme)을 도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제도는 아일랜드어 또는 아일랜드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영어와 아일랜드어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1913년에는 아일랜드 국립대학교의 입학시험에 아일랜드어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1800년대 말부터 아일랜드어 부흥 운동이 학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1921년에 이르렀을 때 전체 7,947개 초등학교 중에서 아일랜드어를 방과 후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1,878개였지만, 이중 언어 교육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239개에 불과했다.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이러한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더블린 지역에 거주하는 중·상류층으로 아일랜드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아일랜드어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익히기보다는 나이가 들어 배워서 사용한 사람들이었다.(Edwards, 1984: 270)

2.2. 1922년~1960년

1922년에 아일랜드가 독립을 하면서 새로 탄생한 국가에서는 19세기에

영어가 아일랜드어를 대체했듯이 이제 아일랜드어가 영어를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랐다. 새 정부에서는 게일 연맹의 창립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오언 맥 나일(Eoin Mac Neil)이 초대 교육부 장관을 맡았다. 그는 학교 교육에 아일랜드어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요 공직마다 영국 식민지에서 일했던 관료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공공 업무에 아일랜드어를 도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 들어선 자치 정부에서는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 아일랜드의 언어, 역사,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올레이라(O'Laoire, 2008)는 1922년에서 1960년대까지의 아일랜드의 언어 정책을 ‘유지’와 ‘부흥’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유지’란 아일랜드어 사용 지역인 켈틱트 지역 내에서 아일랜드어 사용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부흥’이란 영어 사용권 내에서도 아일랜드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924년부터는 학교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일랜드어 또는 영어를 포함한 두 개의 언어로 가르치는 정규 교과목을 도입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했다. 국가 단위의 시험에서 답안을 아일랜드어로 작성하는 학생에게는 본인 성적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1928년에는 대학 입학 자격 고사에서 아일랜드어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1930년에는 300개의 중등학교 중 21개 학교에서 아일랜드어로만 교육을 하기도 했다. 켈틱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일랜드어로 교육하는 초등학교가 1930년대에 대폭 늘어나서 1940년에는 전국에 아일랜드어로만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가 약 5%에 달했다. 그러나 그 후로 이런 학교의 수가 감소해서 1970년대 초반에는 1%도 채 안 되었다.(Coady & O'Laoire, 2002: 144~146)

1940년대까지는 아일랜드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아일랜드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

반에 걸쳐서 확산되지 못하고 학교 교육에 국한되었다. 당시의 아일랜드어 학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위한 언어 학습이라기보다는 학교 시험이나 대학 입학시험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블린 라드루(Blyn-LaDrew, 2003: 44)는 이 당시 아일랜드어가 필수 과목으로 되면서 학생들이 문법적인 실수를 하면 체벌을 받고 대학 입학시험 준비로 큰 중압감을 받는 데다, 아일랜드어 자체가 가난을 연상시키는 탓에 졸업 후에도 아일랜드어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학창 시절에 이처럼 어렵게 배운 언어이지만 막상 졸업을 하고 나면 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서 아일랜드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2.3. 1960년~2000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아일랜드어 부흥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일었다. 소위 언어 자유화 운동(Language Freedom Movement)인데, 이는 학교 교과목, 공무원 임용 시험,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서 아일랜드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젤탁트 지역을 벗어나면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아일랜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거나, 국립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 운동의 여파로 1974년에 정부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아일랜드어를 폐지했다. 그 뒤에 들어선 정부들에서도 공무원 임용 시험에 아일랜드어를 도입하지 못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1960년에는 아일랜드어로 교육하는 초등학교가 420개였는데, 1979년에는 160개로 줄어들었다. 이들 초등학교 중에서 젤탁트 지역 외에 있는 학교는 불과 23개에 지나지 않았다.

아일랜드어 부흥 운동 이후 100년이 지나도록 아일랜드어 사용자들의

언어 능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1973년부터 1993년 사이에 10년 간격으로 국가 언어 조사가 실시되었다.(O'Riagain, 2001: 201)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아일랜드어 말하기 능력 분석

능력 수준	1973년(%)	1983년(%)	1993년(%)
1. 사용하지 않음	21	16	18
2. 소수의 단어	27	32	32
3. 약간의 단순한 문장	22	19	17
4. 일부분의 대화	17	20	22
5. 대부분의 대화	10	10	9
6. 원어민 말하기 능력	3	3	2
계	100	100	100

(출처: O'Riagain, 2001: 201)

위 표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전체 인구의 아일랜드어 말하기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 능력 수준 1과 2에 해당하는 약 50%는 아일랜드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능력 수준 5와 6에 속하는 10%가 약간 넘는 사람들이 많이 아일랜드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능력 수준 6에 속하는 2~3%에 불과하다.

2.4. 2000년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아일랜드는 언어 정책에 새로운 계기를 맞는다. 그것은 2003년 7월 14일에 제정한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Act 2003)’이다. 이 법령의 목적은 아일랜드 내에서 아일랜드어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 법령의 명칭은 ‘공용어법’이지만 제2 공용어인 영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의 의사록,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령, 사법부의 소송 절차, 국민들의 편의 제공이나 의사소통, 공공 기관의 업무 수행에 공용어인 아일랜드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아일랜드의 모든 공공 기관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업무는 반드시 아일랜드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령은 제정된 후 3년 이내에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 및 갤 탁트 장관(Minister for Community, Rural and Gaeltacht Affairs)은 일련의 명령을 마련해야 했다. 그리고 공용어법 제5조에 의하면 갤탁트 장관은 본 법령이 실행된 다음 해부터 이 법에서 명시된 업무들이 전년도에 어떻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용어법에 나타난 국민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법정에 출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본인이 선택한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법정에서는 공용어 간에 동시통역이나 순차 통역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에서 녹음 또는 육성으로 하는 모든 음성 안내, 제반 서류의 서식은 아일랜드어 또는 영어와 아일랜드어로 제공해야 한다. 국민이 공공 기관에 보낸 서한 또는 전자 서신에 대한 회신은 반드시 그 사람이 사용한 언어로 해야 한다. 공공 기관에서 일반 대중이나 일정한 부류의 국민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 서신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아일랜드어로 하거나 영어와 아일랜드어로 해야 한다.

공용어법은 아일랜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영어 사용 지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이를 지역에서 아일랜드어도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하겠다. 물론 공공 기관에서 두 개의 언어를 모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적인 비용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아일랜드어가 사회생활 속에서 통용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아일랜드어로 동시통역이나 번역을 하는 전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일랜드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리라고 본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어가 생활 언어로 자리를 잡아 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사항이다.

2000년대 들어 아일랜드 언어 정책에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된 계기는 2006년 2월 더블린 성에서 아일랜드 왕립 현대 언어, 문식성, 문화 연구 학술원(the Royal Irish Academy Committee for Modern Language, Literacy and Cultural Studies)이 아일랜드 언어 정책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 학술 대회에서 내린 결론은 아일랜드는 풍부한 언어 능력 자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언어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투자가 따르겠지만 진정한 이중 언어 사용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언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 전문가,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익 관계자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학술원은 이 학술 대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그해 9월에 국가 전략 및 각급 학교에서의 언어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한 6개 항목으로 된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국가 전략으로 건의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의 모든 국면과 모국어 및 외국어의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국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긴요하다.
- 언어 전문가, 정치가, 사회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국가자문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
- 국가자문위원회는 사회에서 다언어 사용의 경제·문화적 이점, 언어 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전이 가능한 능력, 다언어 사용과 언어 다양성의 혜택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야 한다.(O'Dochartaigh & Broderick, 2006)

위 건의 사항들을 보면 지난날 아일랜드에서 추구한 학교 교육 중심 언어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범국가적 언어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어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과거의 아일랜드어 부흥 정책에서 탈피해서 영어는 물론 다른 다양한 언어도 포함한

다언어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유럽 연합에서 회원국들이 모국어 외에 2개의 외국어를 교육하도록 하는 ‘모국어+2 언어’ 정책을 결의한 것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3. 갤탁트 지역

겔탁트(Gaeltacht)는 원래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1926년에 갤탁트위원회에서 갤탁트 구역을 처음으로 정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주민이 80% 이상이면 갤탁트 지역, 25~79%이면 준겔탁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해서 갤탁트는 아일랜드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을 의미하게 되었다.(O'Laoire, 2008: 235) 갤탁트 지역의 경계는 가끔 바뀌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대개 아일랜드 전체 국토의 7% 정도를 차지한다. 1981년 통계에 의하면 갤탁트 지역의 인구는 79,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에 해당한다. 지역적으로는 서부 해안을 따라 도네갈, 메이오, 골웨이, 캐리, 코크 등에 분포해 있다.(Commins, 1988: 12)

1950년대 말까지 갤탁트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농업 개선, 전통 산업 육성, 주택 개선, 학교 시설 확충 등에 머물렀다. 1956년에 갤탁트부 (Gaeltacht Ministry)가 신설되면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 산업 시설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이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계속되던 인구 감소세가 1970년대 후반에는 증가세로 바뀌었다.

오헤일라헤(O'hFallaithe, 2004: 173)는 약 100년에 걸친 인구 통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갤탁트 지역 내 아일랜드어 사용자 수의 추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2] 켈탁트 지역 내의 아일랜드어 사용자

연도	전체 인구수	아일랜드어 사용자	비율(%)
1911	189,755	149,677	79
1926	164,774	146,821	89
1936	148,218	123,125	83
1946	137,207	104,941	76
1961	79,323	64,275	81
1971	70,568	55,440	79
1981	79,502	58,026	73
1991	83,286	56,469	65
2002	86,517	62,157	73

위 표에 의하면 1911년 이후로 켈탁트 지역 내의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선다. 1981년과 1991년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수는 증가했지만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73%, 65%로 여전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켈탁트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 지역에 산업 단지를 유치하고, 이에 따라 외부에서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인구 증가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아일랜드어 사용 인구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청소년 인구는 외부로 빠져나가고 30~40대의 노동 인구는 유입되었다. 이러한 인구 유동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안정적인 언어 사용을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입되는 인구 중 상당 부분을 영어 사용자들이 차지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의 언어 사용 균형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켈탁트 지역에 대한 국가 정책이 현행 인구수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 언어 정책 자체에까지 관심을 두지는 못했던 때문이다.(Commins, 1988) 그러다가 2002년 통계에서는 아일랜드어 사용자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연구에 의하면 그 증가 요인이 유입된 인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일랜드어 교육을 받고 그들이 아일랜드어 사용 가능 인구로 산정된 때문

으로 추정된다.(O'Riagain, 2001: 200)

4. 마무리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어를 제1 언어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국민은 채 5%도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두고 여러 학자들이 그동안의 아일랜드 언어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오헤일라헤(O'hEallaithé, 2004)는 언어 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현실적인 언어 정책 목표에 있다고 본다. 즉 영어 사용 지역에서 영어가 아일랜드어로 대체되기를 바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고, 이러한 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어 사용자들에게 영어를 버리고 아일랜드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겔탁트 지역의 아일랜드어 사용자들에게 아일랜드어를 버리고 영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이라고 한다. 그동안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던 공동체에서 영어로 언어 사용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게 한 사례들은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던 공동체가 아일랜드어 사용 지역으로 바뀐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일랜드가 이중 언어 국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유일한 이중 언어 사용은 겔탁트 지역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

올레이라(O'Laoire, 1996)는 이스라엘과 아일랜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자국어 부흥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부흥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일랜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주요 원인을 아일랜드어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또 19세기 후반의 아일랜드어 부흥 운동이 이것을 통해 동족 집단의 유대를 다지고자 시도했던 엘리트 계층의 관심에만 머물렀던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들 활동은 학교 교육 제도의 개혁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그 여파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또한 1922년 독립 후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아일랜드어

몰입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켈탁트 지역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학교 밖에서 아일랜드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도 아일랜드어 부흥 운동이 성공하지 못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아일랜드어 부흥 정책의 기저에는 민족 정체성 회복이 주요 목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정책의 실패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플린(Flynn, 1993: 79-80)은 아일랜드어 부흥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것이며, 이로 인해 치르게 된 추상적인 비용은 국민들의 자존심에 손상을 입힌 것이라고 비판한다. 영어를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면 마치 조국을 저버린 것과 같은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간접적인 비용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칼렌(Kallen, 1988: 132)은 아일랜드어는 민족의 정서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언어로, 영어는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언어로 각각의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영어가 아일랜드에서 민족 정서와 결부되지 못했으며 때로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비판한다.

언어 부흥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행정 정책과 교육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난 150년간의 아일랜드 언어 정책을 되돌아보면 이런 바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의 아일랜드 언어 정책은 행정부, 정당, 교육 당국의 변덕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고난을 겪었다.(O'Buachalla, 1984) 그러나 최근까지 학교 교육 제도와 켈탁트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아일랜드어 부흥을 위한 언어 정책이 2003년에 입법된 ‘공용어법’의 실시로 또 한 번 전기를 맞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관심 있게 지켜 볼 사안이라고 하겠다.

참고 문헌

- Blyn-LaDrew, R. 2003. The Irish language: Past, present, and future. *Geolinguistics*, 29, 40–49.
- Coady, M. & O'Laoire, M. 2002. Mismatches in language policy and practice in education: The case of Gaelscoileanna in the Republic of Ireland. *Language Policy*, 1: 143–158.
- Commins, P. 1988.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language maintenance in the Gaeltacht. In P. O Riagain (ed.) *Language Planning i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70, 11–28.
- Edwards, J. 1984. Irish: Planning and preservation.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5(3-4), 267–275.
- Flynn, D. 1993. Irish in the school curriculum: A matter of politics. *Irish Review*, 14, 74–80.
- Kallen, J. 1988. The English language i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70, 127–142.
- Mac Murchaidh, C. (ed.) 2004. *Who needs Irish? Reflections on the importance of the Irish today*. Dublin: Veritas.
- O'Buachalla, S. 1984. Educational policy and the role of the Irish language from 1831 to 1981. *European J. of Education*, 19(1), 75–92.
- O'Dochartaigh, P. & Broderick, M. 2006. *Language policy & language planning in Ireland: A Report from the Royal Irish Academy Committee for Modern Language, Literacy & Cultural Studies*. Royal Irish Academy: Dublin.
- O'hEallaithe, D. O. 2004. From language revival to language survival.

- In C. Mac Murchaidh, (ed.), *Who needs Irish? Reflections on the importance of the Irish today*, 159–192. Dublin: Veritas.
- O'Laoire, M. 1996. Hebrew and Irish: Language revival revisited. In T. Hickey & J. Williams (eds.), *Language, education & society in a changing world*, pp. 63–72. Dublin/Clevedon, Avon: IRAAL/Multilingual Matters LTD.
- O'Laoire, M. 2008. The language planning situation in Ireland. In R.B. Kaplan & R.C. Baldauf, Jr. (eds.), *Language planning & policy in Europe: The Baltic States, Ireland and Italy*, pp. 193–255.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O'Riagain, P. 2001. Irish languag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1981–1996. In J. Fishman (ed.) *Can threatened languages be saved?* (pp. 195–214).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